

# BTS, '빌보드뮤직어워즈' 4관왕 의미... "그래미도 녹일 것"

'톱 셀링 송'·'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 눈길  
카디비·저스틴 비버 등 팝스타들 제치고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4일 '2021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이들이 '팝의 본고장'인 미국 주류 음악 시장에 이견 없이 자리매김했다는 걸 증명한다. 이번 수상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문은 '톱 셀링 송'과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부터 이 시상식 후보에 올랐으나, 두 부문에 후보로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두 부문에서 더 위켄드, 카디비, 저스틴 비버 등 경쟁한 팝스타들을 제치고 수상까지 거머쥐었다. 방탄소년단은 작년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로 디지털 음원 판매량에서 독보적인 강세를 보였다. 빌보드 차트를 기반으로 하는 시상식인 만큼, 이들의 수상이 예상됐다. 숫자로 수상자를 가려내기 때문에 이들의 인기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된 셈이다.

방탄소년단 RM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서 영상으로 전한 수상 소감에서 "다이너마이트"로 많은 분들께 신선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톱 셀링 송' 수상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했음을 증명해주는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자체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방탄소년단이 해당 시상식에서 세운 최다 수상 기록은 2019년 2관왕이다. '톱 듀오/그룹' 수상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전설적 하드록 밴드 'AC/DC', 미국 팝 밴드 '마룬5' 등 만만치 않은 팀들과 경험해서 상을 거머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처음 초청받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기

존에 받은 상을 제차 수상하고, 처음 받는 상을 추가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현지에서도 방탄소년단의 꾸준한 성장세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미국 주류 시장의 문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소셜 미디어의 절대 강자로 통한다.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으로 해당 시상식의 포문을 열었고, 이제 주요 상까지 거머쥐는 경지에 이르렀다. 방탄소년단이 띄운 소셜미디어는 K팝 스타들이 강세를 보이는 미디어이기도 하다. 이번에 '톱 소셜 아티스트' 후보엔 방탄소년단과 함께 블랙핑크, 세븐틴 등 다른 K팝 그룹들도 지명됐다. 이날 '빌보드 뮤직 어워드' 시상식을 중계한 음악 채널 넷플릭스의 진행을 맡은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는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을 소개할 때 K팝 스타 등의 수식어를 따로 붙이지 않았다. 미국 주류에 스며들었다는 뜻이다. 다른 팝스타와 비교해도 위화감이 없다"고 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는 '그래미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



악 시상식으로 통한다. 방탄소년단은 이미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단골 손님으로 통한다. '그래미 어워드'만 아직 수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처음으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등 수상에 한발 더 다가갔다. 지난 21일 발매한 신곡 '버터'로 내년 '그래미 어워드'를 겨냥한다. 이 곡으로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하면 방탄소년단은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버터' 첫 무대는 이날 '빌보드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선보인다.



## 드림캐처, 데뷔 4년 만에 첫 '단독 리얼리티'

10부작으로 구성된 웹 예능 형태의 콘텐츠...내일 공개

그룹 '드림캐처'가 첫 단독 리얼리티를 통해 팬들과 만난다. 소속사 드림캐처컴퍼니는 '드림캐처가 오는 26일 데뷔 첫 단독 리얼리티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리얼리티는 10부작으로 구성된 웹 예능 형태의 콘텐츠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드림캐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이 가운데 드림캐처는 데뷔 4년 만에 첫 단독 리얼리티를 통해 숨겨왔던 매력을 대방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JTBC '아이돌룸', MBC M, MBC 예브리원 '주간아이돌' 등 예능과 자체 콘텐츠로 유쾌한 예능감을 드러내왔다. 이번 리얼리티를 통해서 7인 7색 개성과

매력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멤버들간의 다양한 케미스트리로 '인셉니아(InSomnia, 팬덤)'에게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데뷔한 드림캐처는 탄탄한 세계관 및 록 사운드를 기반으로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해왔다. 특히 지난 1월 발매한 '디스토피아 : 로드 투 유토피아(Dystopia : Road to Utopia)'는 1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드림캐처는 지난 3월 일본에서 4번째 싱글 '이클립스'(Eclipse)를 발매하고, '케이콘택트 3'(KCON:TACT 3)에 참여하며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또 온라인 단독 콘서트 '크로스로드스'(CROSSROADS)를 통해 2만여 명의 인셉니아와 소통했다.

## 가수 송가인,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대사 됐다

9월1일~10월31일 목포·진도·광주 개최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막을 100일 앞두고 24일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성공개최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한중 도의회 의장, 장석용 도교육감,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김중식 목포시장, 이동진 진도군수, 가수 송가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시 개요 설명, 수목비엔날레 성공개최 지원·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홍보대사 송가인 위촉, 대형 붓을 이용한 수목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수목비엔날레 개최 장소는 목포, 진도뿐 아니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포함해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등 도내 13개 시·군, 23개 전시관이다.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수목 축제 분위

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에 약제를 도입하고, 오디오 가이드로 관람도록 하는 등 온·오프라인 전시를 함께 한다. 웹 미술관, 수목 영상관, 수목 웹 드라마, 수목 퀴즈대회 등 온라인에서만 경험하는 색다른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송가인은 "남도 수목의 본고장인 진도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위촉돼 기쁘다"며 "판소리와 수목은 원래 전통에 기반을 둔 한 뿌리다. 전 국민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목향에 흠뻑 빠지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대한민국 남중화의 화백이 시작된 곳이자 수목화의 전통을 지켜온 예방으로서, 전통 회화를 테마



로 한 수목비엔날레를 최초로 개최할 지역"이라며 "수목비엔날레가남도 문에 르네상스의 화룡점정을 찍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목포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윤립산방 일대에서 열린다. 김정환기자

## '몬스타엑스', 7개월만에 컴백...아홉번째 앨범 다음달 공개

미니앨범 'One Of A Kind'는 다음달 1일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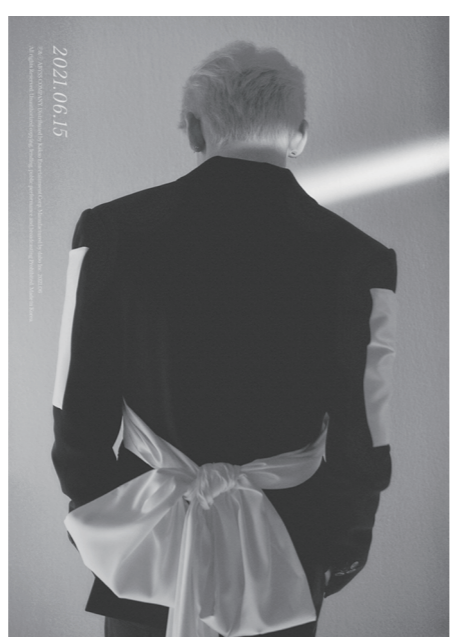
그들 '몬스타엑스'가 아홉 번째 미니앨범 'One Of A Kind (원 오브 어 카인드)'의 타이틀곡 'GAMBLER(갬블러)'를 들고 돌아온다.

몬스타엑스는 22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아홉 번째 미니앨범 'One Of A Kind(원 오브 어 카인드)'의 세 번째 콘서트 포토 22종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몬스타엑스의 멤버들은 렉서리한 분위기의 기내를 배경으로 여섯 청년의 아름다운 비상을 연출하고 있다. 블랙 컬러로 맞춰 입을 멤버들 저마다 색시미를 보여준다. 셔츠는 가죽 재킷과 짙은 머리카락의 조화로 고풍적 어른 색시를 발산했다. 주현은 자유분방한 포즈는 물론 입을 가린 과격적인 액세서리로 유니크한 매력을 선사했다. 아이엠(I.M)은 시원하게 넘긴 헤어스타일로 쿨한 이미지와 동시에 손목에 작은 타투를 드러내며 그만의 스타일도 완성시켰다. 이어 민혁은 그윽한 눈빛으로 성숙한 매력을 풍겼고, 기현은 다양한 액세서리와 유리잔 등 소품을 활용해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마지막으로 형원은 블랙 의상과 대조되는 맑은 눈 맞춤으로 정석 미남 면모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콘서트 포토에서 셔츠와 주현, 아이엠 그리고 민혁과 기현, 형원으로 세 사람씩 유닛을 나눠 서로 매력과 개성을 배가시키기도 했다. 새 미니앨범 'One Of A Kind'로 돌아오는 몬스타엑스는 데뷔 후 첫 대상을 안긴 정규 3집 'Fatal Love(페타럴 러브)' 이후 약 7개월 만에 국내 컴백을 앞두고 있다. 특히 앨범마다 작사, 작곡에 이름을 올려온 몬스타엑스가 이번에도 전곡 참여한 물론, 주현은 데뷔 최초 몬스타엑스 앨범 타이틀곡 'GAMBLER'를 프로듀싱하는 등 음악적 성장도 예고했다. 몬스타엑스의 아홉 번째 미니앨범 'One Of A Kind'는 6월1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뉴시스

## 갯세븐 뱀뱀, 데뷔 7년 만에 솔로가수

그룹 '갯세븐' 뱀뱀이 데뷔 7년 만에 솔로가수로 나선다. 24일 소속사 어비스 컴퍼니에 따르면 뱀뱀은 오는 6월15일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한다. 앨범 발매에 앞서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는 정장 차림에 커다란 리본을 맨 뱀뱀의 뒷모습과 그 위로 한줄기 비치는 빛이 담겨 있다. 어비스 컴퍼니는 "뱀뱀은 갯세븐 앨범에서 솔로곡을 선보인 바 있지만, 이번 앨범은 2014년 데뷔 이후 온전히 뱀뱀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처음 선보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갯세븐은 2014년 데뷔 이후 2PM을 잇는 JYP엔터테인먼트의 간판 보이그룹으로 활약해왔다. 3세대 K팝 대표 보이그룹 중 하나다. '니가 하면' '하드캐리' 등의 히트곡을 냈다. 하지만 올해 초 멤버 7명 전원과 재계약이 불발됐다. 현재 멤버들은 새로운 소속사에 속속 동지를 들고 있다. 뱀뱀은 최근 어비스컴퍼



니에 등지를 틀었다. 팀이 해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멤버별로 소속사가 다른 만큼, 완전히 활동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여고괴담' 시리즈 12년만에 부활...다음달 개봉

공포 영화 '여고괴담' 시리즈의 새로운 부활을 알리는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가 6월 개봉한다. '여고괴담 5' 이후 12년만이다.영화는 과거의 기억을 잃은 채 모교의 교감으로 부임한 '은희'(김서영 분)가 학교 내 문제아 '하영'(김현수)을 만나 오랜 시간 비밀처럼 감춰진 화장실을 발견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충격적인 기억의 실체를 마주하는 이야기이다. 개봉 소식과 함께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학교가 공포의 공간으로 변모한 순간을 담았다. 캐비닛 뒤에 감춰진 폐쇄된 공간에 대한 궁

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바닥에 놓여진 문 손잡이는 학교 안에서 펼쳐질 끔찍한 사건에 대한 긴장감을 더한다. '여고괴담' 시리즈는 학교를 무대로 신선한 소재와 사회에 화두를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혁신적인 촬영 기법 등으로 한국 공포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얻었다. 배급사 측은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과 잃어버린 기억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면서 서서히 조여오는 공포를 밀도 있는 서사와 강렬한 스펀스로 그려냈다"고 덧붙였다.

